

# 죄, 복음, 그리고 율법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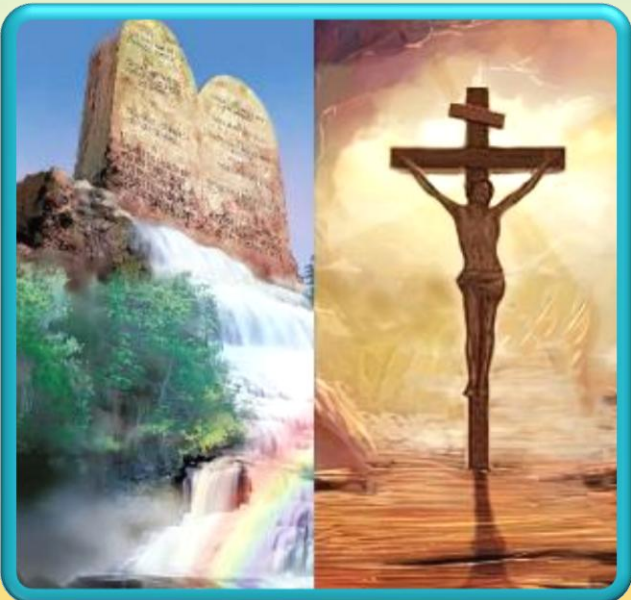
(시 119:93, 94)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며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죄로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동을 시정해, 즉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만으로, 즉 율법을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맞서  
싸우는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 유혹을 피함  
👉 죄를 피할 지침

**죄**




📖 율법과 죄

**율법**



✝️ 복음과 율법  
✝️ 바위위에 집을  
지음

**복음**





#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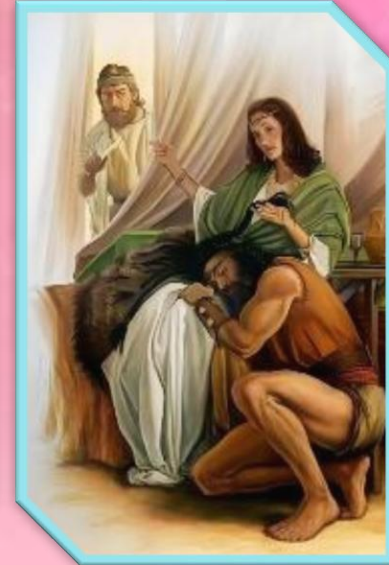
# 유혹을 피함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약 1:14 NIV)



야고보는 시험(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약 1:12).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약 1:13), 우리 자신의 악한 정욕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약 1:14).

바울도 “유혹하는 자”(살전 3:5)에 대해 언급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4:3, 10).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죄짓게 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우주적인 전쟁을 하시는 한복판에 살고 있고 유혹하는 자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유혹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혹에 지고만 사람의 운명을 잘 보여줍니다(삿 14:1-3; 16:1, 4)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구하고(마 6:33), 그분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막 14:38), 믿음의 방패를 붙잡는 것입니다(엡 6:16).



# 죄를 피할 지침

“네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막 9:47)

大.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라.  
(막 9:43; 욥 23:12). 예를 들어, 술을 사는 것.

죄의 유혹이 빈번한 장소를 가지 말라(막 9:45; 욥 23:11). 예를 들어,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

악행하는 장면들을 보지 말라(막 9:47; 욥 31:1). 예를 들어, 외설적인 장면이 나오는 영화.



다시 말해, 죄와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 1 혼자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고전 10장 12절)
- 2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떠벌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 (마 6:2).
- 3 마음의 정욕의 뿌리들을 뽑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마 5:28-29).
- 4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전 4장 5절)
- 5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 5:44)
- 6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내는 것을 멈추십시오. (마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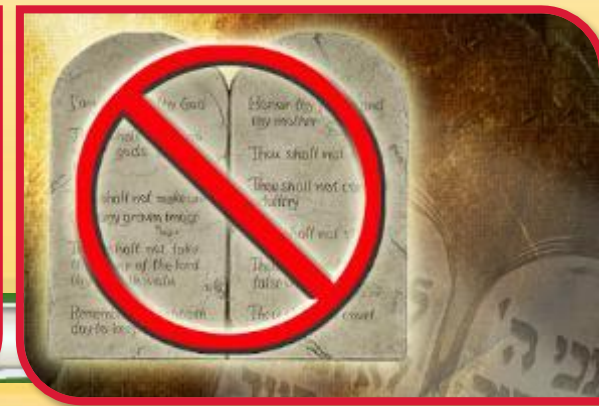
תורה

פרש



# 율법과 죄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요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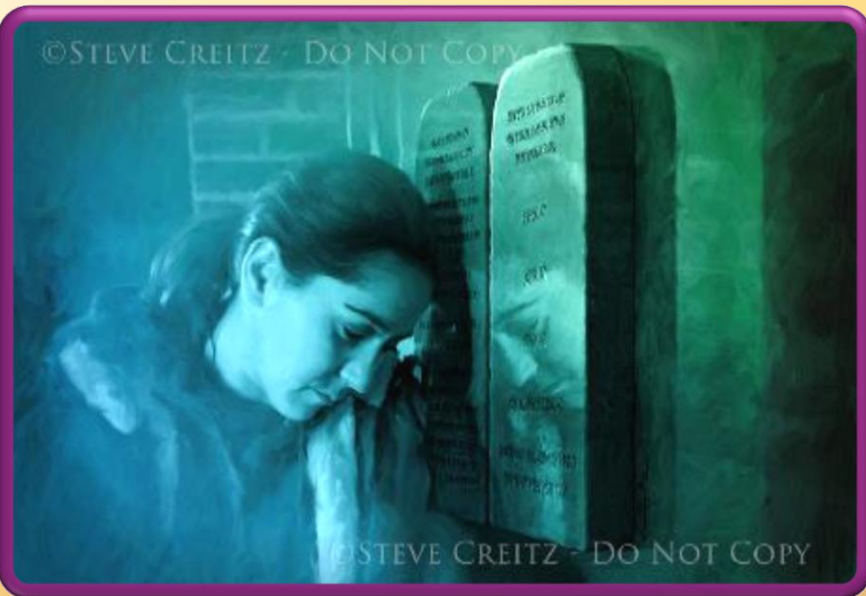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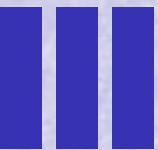
율법을 잘 지키므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던 사람들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잘못 해석했습니다(갈 5:4). 이에 반해,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즉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장애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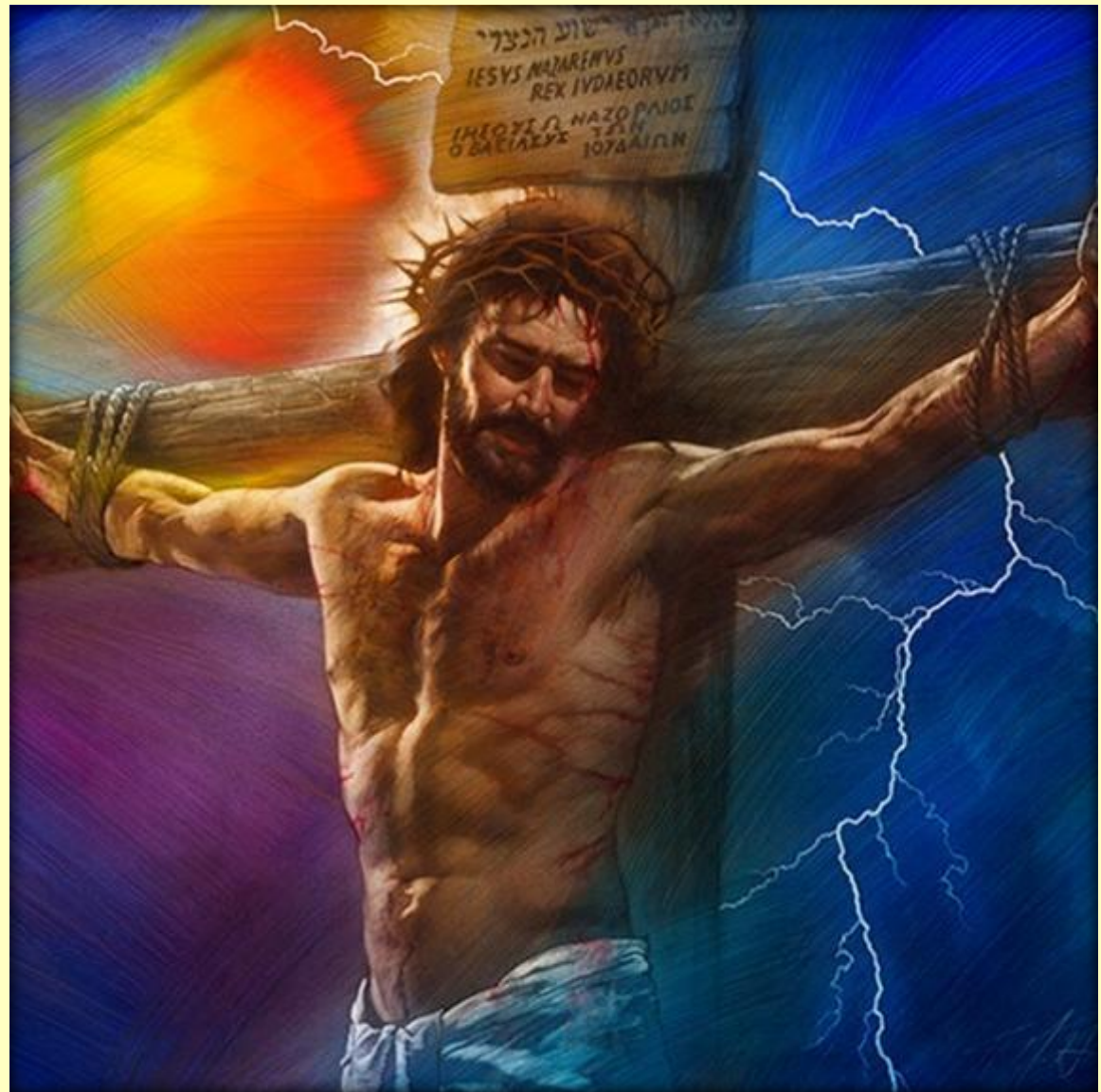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 줍니다(요일 3:4).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며(롬 7:7),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갈 3:24).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죄의 끔찍한 대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입니다(요일 5:3; 시 1:1-3).





#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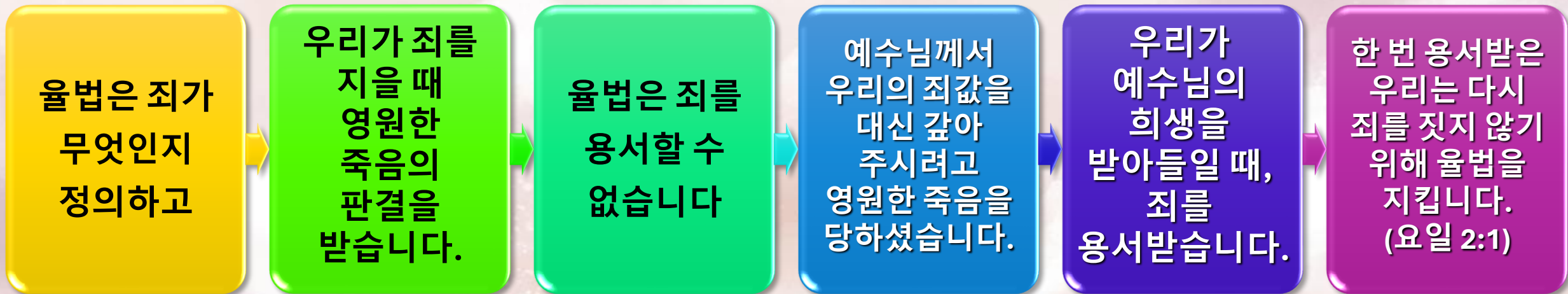


# 복음과 율법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롬 3:28)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즉 죄 사함과 영생을 받습니다(갈 3:13).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요일 4:9, 19).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거합니다(요 14:15).

율법과 복음, 즉 예수님께서 흘리신 귀중한 피로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율법을 확증하셨습니다(마 5:17). 율법과 복음 모두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바위위에 집을 지음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마 7:24)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맨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롬 10:14).

그러나 안다는 지식 자체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도 복음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나 (폭풍이 와서) “그 집이 크게 파괴된”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마 7:26-27).



지식을 얻으면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마 7:24-25).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롬 3:28).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마 7:18-21).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를 보여줄 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약속하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서는 죽음의 판결을 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정죄받은 양심과 죄가 더럽힌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긴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본성(성품)을 나누어 받습니다.” 엘렌 화잇 (각 시대의 대쟁투. 467)